

광주·전남교육청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1위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24.4%·전남도교육청 15.6% 줄여
시설 개선 등으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이 감축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5531tCO₂e(온실가스 단위)를 배출해 기준 배출량(7315tCO₂e)에서 24.4%를 감축했고,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8810tCO₂e를 배출해 기준 배출량(1만 434tCO₂e)보다 15.6%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상인 774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421만tCO₂e(이산화탄소 상당량)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배출량인 502만tCO₂e의 19.6%(98만tCO₂e

)인 98만tCO₂e 줄은 결과이다. 2017년 감축률(18.3%)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원인은 지난해 대상기관이 시설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힘쓴 결과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기준배출량은 각 기관의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을 토대로 정해졌다. 시설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배출량을 조정한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도입된 201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공기관(287개), 지방공사·공단(135개), 국·공립대학(36개), 국립대학병원(11개)에서 감소했

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45개)은 오히려 3.8% 증가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감축률은 평균 감축률(19.6%)을 상회하는 반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은 감축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 충남 서천군과 인천시,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조폐공사, 울산시설공단, 한국방송통신대 등은 감축 성과가 우수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문화재청, 강원 속초시와 경기 여주시, 세종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연천군시설관리 공단과 광주도사관리공사, 전북대와 강릉원주대, 부산대치과병원과 충북대병원 등은 오히려 기준배출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감축률이 낮았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수단으로는 ▲건물 조명 소등, 냉난방 온도 준수 등의 행태개선 방법 ▲LED 조명 보급, 고효율 기기 교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등의 설비개선 방법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등이 꼽힌다. 환경부는 전체 감축량 중 행태개선을 통해 71만, 시설개선을 통해 10만t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행태개선으로 71만tCO₂e(72.4%)를 절감했음을 볼 때 에너지 절약 등의 시민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그동안 제도 시행 성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2020년 이후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등산 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직원·자원활동가·자율레인지 등이 최근 무등산 국립공원내 폐목장부지에서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무등산 ‘외래생물 제거의 날’ 행사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고유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한 ‘외래생물 제거의 날’ 행사를 지난달 31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등산국립공원의 폐목장부지에서 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직원·자원활동가·자율레인지 등 총 19명이 참여해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작업이 진행됐다.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돼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

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도깨비가지, 돼지풀, 애기수영 같이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자생하는 생태계교란생물은 강한 번식력으로 자생식물의 서식지를 잠식하며, 사람들에게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제거가 필요하다는 게 국립공원공단의 설명이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관계자는 “꾸준한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제거를 통해 무등산국립공원의 생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기 청년 환경측정기술인 양성과정 개설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래 환경분야 측정분석 인재 양성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제2기 청년 환경측정기술인 양성과정’을 오는 21일부터 3일 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에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층의 자기개발 및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청년 환경측정기술인 양성과정’은 환경측정분석의 다년간 축적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최신 분석장비 및 운영방법 교육으로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도 제공한다.

참가방법은 오는 14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ninano765@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기관은 관련 관련 법률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환경측정분석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환경측정분석사(최종 합격률 10~20%) 자격을 취득한 인력은 420여 명으로 앞으로 580여 명의 추가 취득자를 필요로 한다는 게 환경청의 설명이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미래 환경분야 측정분석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나뭇잎 옷 디자인 체험 ... 환경의 소중함 배워요



광주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여름독서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최근 ‘나뭇잎 옷 디자인하기’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 11개 제품 회수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해 1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11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으로, 초 4개, 방향제 4개, 세정제 2개, 광

택 코팅제 1개이다.

이들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판매 금지를 요

청했다. (사)한국은라인쇼퍼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11개 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남구 ‘1회 용품 사용규제 홍보단’ 운영

식품접객업소 등서 환경보호 동참 유도

광주시 남구는 “1회 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쓰레기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1회 용품 사용 규제 홍보단’(이하 홍보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홍보단은 1회 용품 사용 빈도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및 목욕탕, 도·소매 업소, 집단 급식소 등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업소 스스로가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총 8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홍보단은 2인 1조로 매주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2~3시간씩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며,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남구 16개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회 용품 다양 이용시설을 중점 대상으로 사업장별 준수사항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펼

칠 예정이다.

주된 홍보 내용은 ▲여러 차례 이용할 수 있는 다화용컵·텀블러 사용 및 지참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 권장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비닐 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 등이 다.

또한 계도 활동 중 사업자와 주민들의 불편 사항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광주시와 환경부에 건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1회 용품 사용 줄이기는 내 스스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인식 개선이 이뤄진다면 생태계 파괴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위해 홍보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부동산 투자 !

(주)오천과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상담문의. 최선규 010-3605-5000

투 자 하실분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